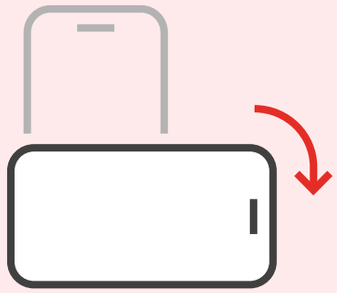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국내사업 결과보고

세이브더칠드런



이 보고서는 가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더 편하게 보세요!

2025년 상반기
국내사업 결과보고

COVER STORY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CONTENTS

2025년 상반기 국내사업 소개 04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 06

국내 인도적지원 사업 10

위기임산부·아동 양육첫걸음 지원사업,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옹호활동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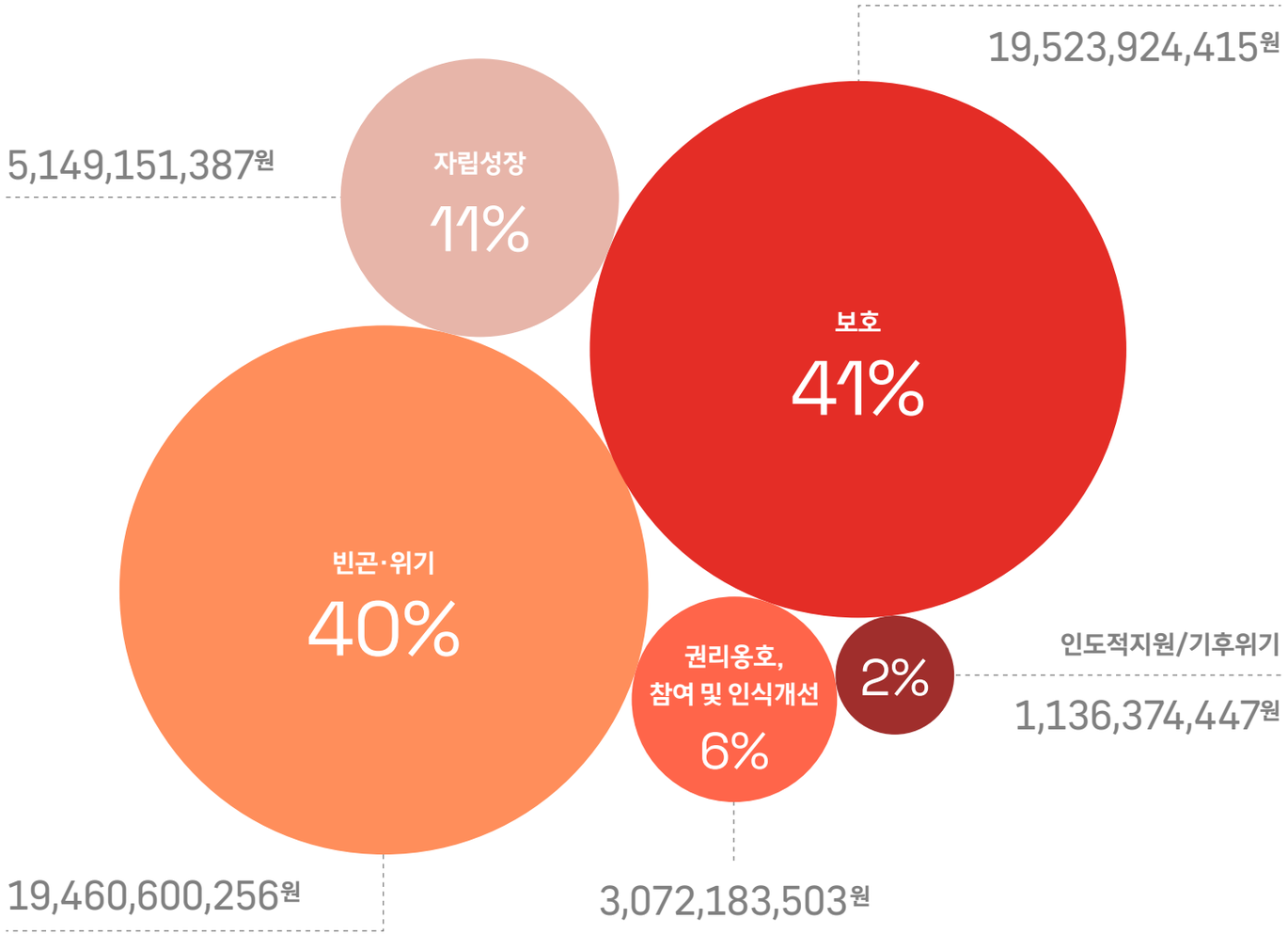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17

2025년 상반기 국내사업 소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보호, 빈곤·위기, 자립성장, 권리옹호, 참여 및 인식개선, 인도적지원/기후위기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2025년 국내사업 영역별 예산 계획



합계

48,342,234,008원

2025년 국내사업 영역 및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보호	아동보호시설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 심층사례관리, 가정위탁아동지원, 양육코칭프로그램, 양육취약계층 부모교육프로그램(도담도담, 조손도손)
빈곤·위기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 위기임산부·아동 양육첫걸음 지원사업, 위기아동지원, 아동식사지원, 난민아동지원, 국내아동결연, 보건의료지원, 지역빈곤위기사업
자립성장	자립성장지원기관운영(새움센터), 아동강점강화사업, 가족돌봄청소년지원사업, 장애아동발달지원, 삼성다문화청소년스포츠클래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지원, 놀이환경개선, 놀이환경진단사업, 지역자립성장지원, 지역 놀권리 지원
권리옹호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자녀살해 후 자살 예방 및 대응,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이주아동 권리보장, 장애아동 권리보장, 유엔인권메커니즘 대응, 국회 대응 등
참여 및 인식개선	지역옹호(아동참여위원회), 장애아동 참여권 교육 및 실천사례 운영, 아동 참여 인식 증진 활동, 영세이버,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참여 활동 및 양육자 교육(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아동권리교육
인도적지원/기후위기	국내 재난대응 활동(국내인도적지원), 기후위기 인식증진 활동,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2025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업 성과를 소개합니다.
각 사업의 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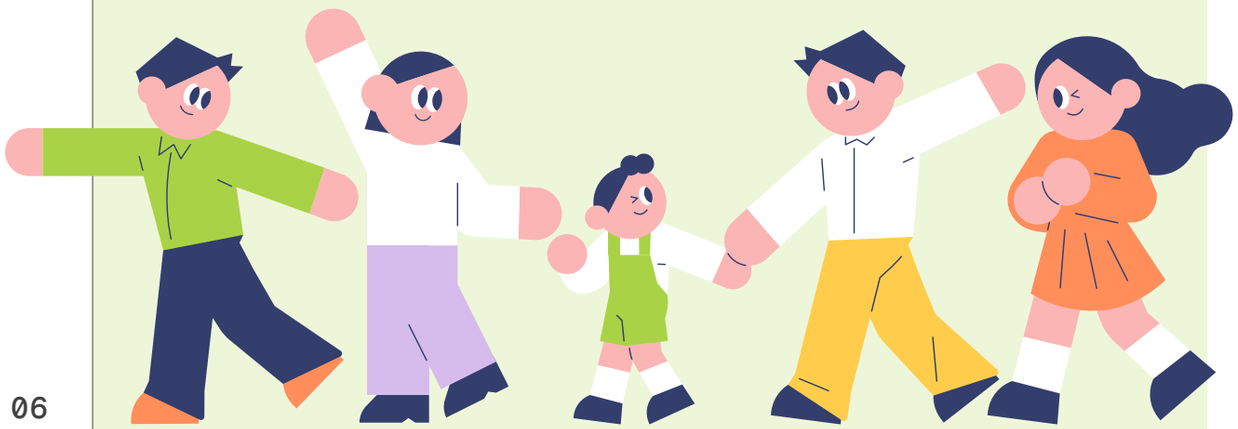


마음부터 일상까지 살피는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을 담당하는
아동권리사업팀 신가영 대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은 말 그대로 세이브더칠드런과
후원자님이 모여 아동 한 명이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함께 키워가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후원자님 최대 8명이
모여 국내 아동 1명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꾸준하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저소득 조부모가정 지원 DREAM' 사업을 통해 아동을 지원했는데요.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 중심 맞춤형 지원은 아이들의 결핍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였으며, 아동이 성인 역할을 하는 부담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조부모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이주배경가정,
장애아동가정 등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양육의 어려움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양한 가정의 아동에게도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조부모가정 아동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아동과 후원자와 연결해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합위기가정의 아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고, 교육 기회가 제한되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등 여러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부모가정 아동은 주 양육자인 조부모의 건강 문제, 근로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 고립되는 상황 등 여러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한 명의 보호자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기 때문에 아동이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보호자가 장시간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힘들고, 이로 인해 아동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제적인 제약을 겪게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을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동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후 전문 상담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지원, 진로 지원, 마음 지원의 세 가지 영역에서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상생활 지원**	균형 잡힌 식사, 생활·위생용품 제공, 의료비 지원, 아동의 건강을 위한 환경 개선 등
2 **진로 지원**	기초학습 지원, 자립을 위한 진로 탐구 지원 등
3 **마음 지원**	상담, 심리치료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동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지원 결과

지원 아동

300명

지원 지역

전국 15개 시·도 45개 시·군·구

함께한 협력기관

54개

2025년 예산

1,192,000,000원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 학원비를 지원받은 은지 이야기 •



고등학생 은지(가명)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서 여러 일을 하며 은지를 키워오신 할머니는 허리디스크로 일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더해져 가정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은지의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은지에게 학원비와 재료비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얻어 주신 연습용 가발과 유튜브 영상에 의지해
홀로 연습하면서 꿈을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는 세이브더칠드런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을 통해 후원자님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은지와 가정의 상황을 살펴 필요한 식료품과 학원비를 지원했고,
은지는 미용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려 5개의 미용 대회에 출전해 수상했습니다.
은지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자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께 짐이 될까 봐 중간에 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 덕분에 학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

아이가 운동화를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 맞춤형 지원을 받은 주안이 이야기 •

주안이(가명)는 3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암 수술 후 계속해서 병원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안이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늘었고, 옷이나 신발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같이 한 아이 키우기〉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성장기인 주안이가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료품을 구입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안이에게 꼭 맞는 운동화와 옷을 전달하여 그동안 큰 신발을 신어 자주 넘어지던 주안이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안이가 집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난감과 동화책, 학습 교구 등을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로서 아이들의 삶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늘 후원자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후원자님의 관심은 단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아이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선물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아이는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해주세요!



어릴 적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라는 동요를 즐겨 부르던, 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리옹호사업부문 신가영 대리

재난 현장에서 아이 먼저 구하는

국내 인도적지원 사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국내 인도적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아동권리사업팀 윤채원 매니저입니다.

먼저, 인도적지원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긴급구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물품 및 긴급생계비, 주거지원비 등을 즉시 지원하고,
재난을 겪은 아동의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전의 생활로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적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를 비롯해 국내의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도적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 대응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간대별 인도적지원 대응 프로세스



세이브더칠드런은 3월 21일 산불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48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현장 피해 현황을 집계하지만, 아동의 피해 현황은 빠져 있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기관과 함께 아동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소 텐트마다 방문해 일일이 아동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구호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른 중심의 긴급구호물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져 말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아이들에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용 옷과 신발, 칫솔, 마스크, 양말, 장난감, 학습 교구를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산불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아동 가정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소 가정(주택이 전부 불에 탄 가정) 아동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153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식비, 생필품 구입, 임시 주거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 8곳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아동의 트라우마를 완화하도록 집단 활동, 놀이, 개별 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심리사회지원Journey of Hope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전소 가정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후에도 매월 아동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택의 일부 피해를 입은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빠른 주거환경 복구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영남지역 산불피해복구지원〉 결과

지원 아동

845명

· 긴급구호물품 지원 180명 · 긴급생계비 지원 153명 · 주거비 지원 32명
· 심리정서적 지원 180명 · 아동복지시설 지원 300명

지원 성인

376명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대상 부모)

2025년 예산

1,154,452,000원

국내 인도적지원 사업

아이들만을 위한 옷이랑 신발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양군 산불피해 가정 이야기 •

산불이 급하게 번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물에 숨어야 했어요.
그때 아이들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
아이들 용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래를 말기고 애들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
대피소에 아이들만 두고 갈 수도 없어서 많이 막막했어요.
구호물품 중에도 아동용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들만을 위한 옷이랑 신발, 생활용품을
따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산불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가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을 위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산불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지원한 단체였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아동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깊은 신뢰와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른 신발을 신고 있던 한 아이에게 꼭 맞는 신발을 건네주었을 때, 그 신발을 신은 아이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웃던 모습이요. 그 작고 소중한 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현장에서 직접 느낍니다.

재난 상황 속 아동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아이들 곁에 있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목소리가 커서 '가수 하라'는 말을 듣던 아이는, 이제 국내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리옹호사업부문 윤채원 매니저

모든 아기들의 안녕을 묻는

위기임산부·아동 양육첫걸음 지원사업,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옹호활동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김소영 매니저, 조은경 대리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양육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위기 영아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아동 양육첫걸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양육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하는 일을 위해 월 2~4회 전문 상담사인 양육세이버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매주 아이와 엄마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른다'며, '원래 아이는 이렇게 많이 우는 게 맞는지, 지난주까지 많이 먹던 분유를 갑자기 이번 주에는 많이 안 먹는데 괜찮은지' 이렇게 같이 상의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보호자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양육세이버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를 넘어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생계, 주거, 의료, 식사, 교육, 자립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족 단위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지 않고, 이웃과의 교류도 줄어든 시대입니다. 보호자 한두 명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더 고되고 벅차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출생 위기 시대에 아동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미래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위기임산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하더라도, 주거환경, 건강, 보육, 영양 등 여러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인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산 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아이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돌보미가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세이브더칠드런의 가정방문서비스는 가정의 위기상황과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출생과 양육의 책임을 온전히 가정에만 지우는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기의 안녕을 확인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가정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이의 첫걸음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부모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지원 결과

- **위기임산부·아동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및 효과성 평가연구 실행**
- **가정방문서비스 법안 발의**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위해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2024. 12. 17.)하였습니다.
모든 임산부·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양육 코칭 등을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활동입니다.

- **가정방문서비스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5년 6월 10일 미국, 일본의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사례를 통해 한국의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318,640,000원

위기임산부·아동양육첫걸음 지원사업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처음이라 너무 막막했어요.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유진씨의 이야기 •



유진(가명) 씨는 생후 7개월 된 아기 승주(가명)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자취를 감췄고, 부모님과도 관계가 소원해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유진 씨에게 육아는 버거운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자주 막히고, 아이 방에는 곰팡이까지 피어나는 등 집안 환경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앓아온 우울증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며 유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 씨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육세이버를 가정에 파견했으며,
현민영 양육세이버가 유진 씨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현민영 양육세이버는 아기를 달래는 법부터
분유 수유, 이유식 만들기, 재우는 방법까지 다양한 양육 정보를 전하며 유진 씨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 개선도 함께 도왔습니다.** 또 승주의 발달 상태가 다른 또래보다 느린 것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고, 조기 진단을 통해 시작된 재활치료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처음이라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유진 씨는 맞춤형 양육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조카가 태어나고 커가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피부로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엄마는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방문이 오히려 피곤할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말 못 하는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더 쉽지 않다는 답이 들려왔습니다.

양육의 시작점에서부터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가정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립스틱을 온몸에 바를 만큼
호기심 많던 아이는, 이제 아이들이 꿈을 꾸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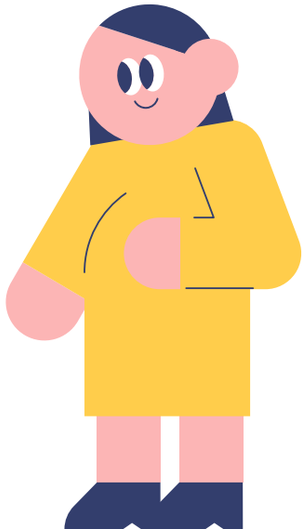
권리옹호사업부문 조은경 대리

언니와 남동생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아이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리옹호사업부문 김소영 매니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백일장 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 줄곧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 **후원서비스부문 한국화 매니저**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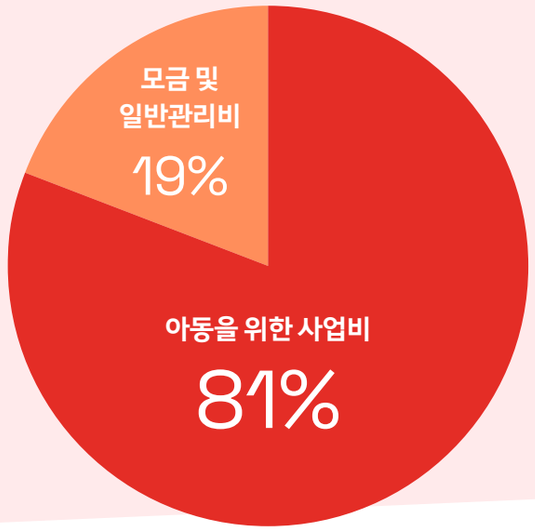
1919년 설립 이래, 세이브더칠드런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소외된 아동을 위해 한 걸음 앞서 걸어왔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언제나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후원금의 81%를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나머지 19%를 모금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보고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더욱 투명하고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100년이 넘는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총 후원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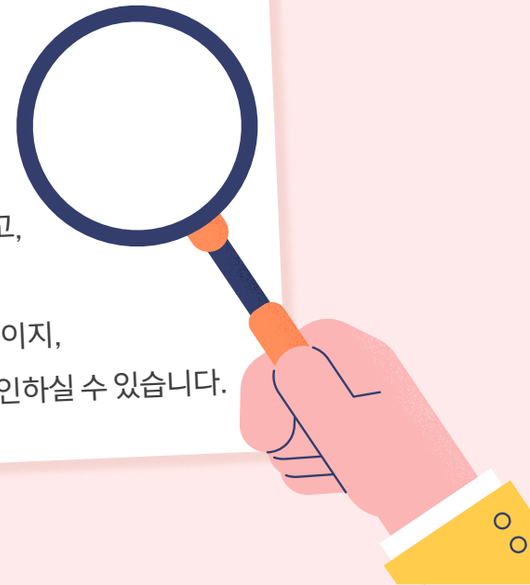


합계

114,228,581,714원

세이브더칠드런의 투명성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 **홈페이지** www.sc.or.kr